

2023년도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3년 9월 26일(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신성환 위원
박춘섭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강승준	감사	민좌홍	부총재보
	이상형	부총재보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최창호	조사국장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박종우	금융시장국장	오금화	국제국장
	권민수	외자운용원장	최용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보고안건

<보고 제66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6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9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최근 금융안정상황 및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금융안정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여러 방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책무수행에 있어 당행의 정책권한과 책임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행의 역할 범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일부 위원은 당행의 금융안정 책무는 거시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보고서 작성시 금융안정상황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한계기업 등 특정 취약 부문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잠재리스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진단과 대응방안 제시에 있어 학계 및 전문가 등과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고려해야하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 방향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국 금융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금융시스템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하면 금융시스템내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대내외 충격에 따른 실물·금융경제 여건이 급변할 경우 그간 중첩되어 있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음

이에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금융안정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충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금융시스템내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는 가계부채 및 비은행 부문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시계에서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음

이를 위해 당행도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